쌓인 폐습을 청산하라

지금까지 정치는 아직도 민심을 크게 위로하지 못했고 기강을 바로잡지 못했으며 공정한 도리를 널리 베풀지 못해서 탐하는 풍조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착하고 나쁜 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벼슬길이 혼잡한 것도 여전하고, 송사(訟事)[1]와 옥사(獄事)[2]의 재판도 공정하지 않아 권력이 있고 교활한 자가 이기는 일도 전과 같습니다. 천심(天心)[3]도 예기치 않게 재이(災異)[4]가 거듭 나타내 보입니다. 백성의 힘은 이미 고갈되었지만 나라의 혜택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여러 해 동안 쌓인 고질병(痼疾病)으로 한 가지 약만

1 송사(訟事): 민사사건의 재판
2 옥사(獄事): 형사사건의 재판
3 천심(天心): 하늘의 뜻, 의지
4 재이(災異): 재앙과 이변

으로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높은 벼슬아치는 일을 흐리터분하게 얼버무리는 습속에 빠져있고, 낮은 벼슬아치는 일을 대수롭지 않고 익살스럽게 해치우는 습속에 빠져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관청은 훔치고 게으른 습속에 빠져있고,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는 백성들로부터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습속에 빠져있습니다. 오랜 습속에 얽히고설켜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을 숙달된 융통성으로 여기고, 윗사람에게 건의하는 일을 공연히 일 만드는 것으로 여깁니다. 줏대 없이 시류(時流)를 따르는 것을 중도(中道)[5]를 얻었다 말하고, 특별한 원칙을 세워 시류에 이끌리지 않는 자를 물정에 어둡고 괴이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라의 이런 모습은 권세를 지녔던 간신이 나라를 좀먹던 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옛 방식대로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며 임시방편으로만 일을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지에 날로 전진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마침내 나라가 반드시 혼란스러운 데로 달려갈 뿐이니, 어찌 깊이 두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5 중도(中道): 어떤 상황에서 선택이나 행동이 진리에 딱 알맞은 상태

이 상소를 쓴 배경은 좀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해보겠다.

중종이 반정에 성공한 뒤 그 후반 조정의 정파는 세자(훗날 인종)의 외숙인 윤임(尹任)을 중심으로 한 대윤(大尹)과 문정왕후가 낳은 경원대군(훗날 명종)의 외숙인 윤원형(尹元衡)을 영수로 삼는 소윤(小尹)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그러다가 인종이 재위한지 8개월 만에 죽고 그 뒤를 이어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명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모후인 문정황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때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형이 실권을 잡아 예조참의에 복귀하고 대대적인 보복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을사사화이다. 그 뒤에도 윤원형은 양재역 벽서사건을 기회로 대윤의 잔당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하여 권력을 확고히 잡았다. 이른바 선생이 상소에서 말한 왕의 외척이자 권세를 지낸 간신의 독재정치가 시작되었는데,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 20년간 지속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세를 지닌 간신의 독재정치가 그렇듯 윤원형도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그의 권력과 재산은 국왕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본처를 쫓아내고 첩이었던 정난정(鄭蘭貞)을 정경부인으로 삼고, 또 정난정은 문정왕후가 아끼던 승려 보우(普雨)와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그런 그도 1565년(명종20) 문정왕후가 죽자 신하들의 탄핵을 받

아 유배를 당하였고, 악행이 탄로나 사사될 위기에 정난정과 함께 자결하였다고 한다.

비록 윤원형이 처단되었다고는 하나 그가 정치를 그르치고 또 그 여파로 잘못된 습속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선생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이 상소가 있기 전에 이 같은 맥락에서 선생은 윤원형과 승려 보우를 논박하는 상소를 올린 적도 있다.

먼저 선생은 정치가 잘못되면 모든 분야가 엉망이 됨을 말하였다. 관리의 임용, 재판의 공정성, 관리들의 근무태도, 사회기강의 해이, 가치관의 혼동 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강을 바로잡아 나라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문의 "천심(天心)도 예기치 않게 재이(災異)가 거듭 나타내 보입니다."라는 말을 요즘 젊은 독자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 같다. 천심이라는 하늘의 마음 또는 의지, 곧 인격적 하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독교처럼 하느님을 믿는 것도 아니어서 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나라 이후로 줄곧 전해져 왔다. 곧 중국 전한 때 동중서(董仲舒)라는 철학자가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을 주장해 온 이후로 이런 전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곧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 하늘은 풍년이 들고 자연재해를 없게 하지만, 임금이 정치

를 잘못하면 하늘은 재앙 곧 천재지변과 이적(異蹟) 곧 기이한 징후를 보인다고 한다. 요즘의 과학적 시각에서 보면 미신에 가깝지만 이런 학설을 받아들였던 것은 군주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옛 선인들의 말만 가지고 무엇 하겠는가? 공자님이 어쩌고 퇴계 이황 선생이 예전에 무슨 말을 했다고 소개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로 선생의 주장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의식이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각설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쌓인 폐습 곧 적폐(積弊)는 무엇일까? 사실 이 문제는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그 정당성 여부는 후대에 평가하겠지만, 독자들도 그 적폐를 각자 나름대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것도 필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 성향에서 말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에게 쌓인 폐단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있다고 본다. 정치 · 경제 · 교육 · 사회 · 국방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적폐가 없는 곳이 없다. 국론은 분열되어 갈가리 찢겨져 있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헐뜯고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보수라는 이름으로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을 강요한다. 이러니 진짜 진보와 보수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

그 사례가 많지만 경제 분야 하나만 살펴보자. 최근 20년 동안만 봐도 경제가 좋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눈에 띄게 경제가 확 나아지게 만들지 못했다. 아니 이건 틀린 말이다. 되레 경제사정이 이전보다 좋아진 계층도 있다. 다만 서민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사정이 나쁘다면 이웃나라 일본이나 그 밖의 나라도 어려워야 한다. 어디 그런가?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이런 저런 대책을 내린들 어느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든 간에 달라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야당은 여당의 실정이라고 비판하거나 여당은 단기적 처방만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이 무사안일하게 자신의 정치생명만 연장하려고 구태연 한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나라가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정치생명도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국민들도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民力이 已殫하나 而惠澤이 未下라.
국 력 이 탄 이 혜 택 미 하

» 어휘 풀이

民力: 백성들의 힘 또는 재력 / 已: 이미 / 殫: 다하다, 다 없애다 / 而: '~하고' 또는 '~하나'를 뜻하는 접속사 / 惠澤: 은혜와 덕택으로 혜택 / 未: '아직~아니다'를 뜻하는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 下: 내려가다

» 문장 구조

1. 접속사 而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문장이 되어 있다. 각각 영어의 1형식 문장에 해당된다.
2. 而는 반드시 문장과 문장을 잇는데, 보통 '~하고'의 뜻으로 순접으로 쓰이나, 가끔 '~하나' 또는 '~하지만'의 역접으로 쓰인다. 여기서 쓰이는 용법은 역접이다. 그래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뜻이 상반된다.
3. 앞 문장의 '民力已殫'의 주어는 民力으로 복합명사이다. 동사는 殫이며 已는 부사이다.
4. 뒤 문장의 '惠澤未下'의 주어는 惠澤인 복합명사이고, 동사는 下이며 未는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5. 民力의 力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백성들의 삶 또는 경제력을 뜻한다. 殫는 '다하다'의 뜻으로 고갈되었다는 의미이다. 惠澤은 나라 또는 임금의 그것을 말한다.

» 해석

백성의 힘이 이미 고갈되었지만 나라의 혜택이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